


보 도 자 료

	◆ 2024. 10. 29. (화) 배포
	◆ 총 3쪽 (본문 2쪽, 붙임 1쪽)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해양대기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032-760-5393
	강민구 홍보실장 ☎ 032-770-8631

남극해 관측 시스템 과학위원회 위원 위촉

극지연, 박기홍 박사 SOOS SSC위원 위촉… “남극해양연구서 한국 위상 알릴 것”

-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연구소 소속 박기홍 책임연구원이 남극해 관측 시스템 과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 남극해 관측 시스템 과학위원회(SOOS SSC, Southern Ocean Observing System,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는 남극해의 변화를 관찰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제기구이다.
-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과학계가 남극해를 이해하고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기여한다. 기후변화로 서남극 등이 빠르게 녹으면서 해빙의 분포가 바뀌고 남극 해양생태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현시점에, 남극해는 인류의 생존과 더욱 밀접해졌으며, SOOS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 SOOS는 남극해를 인류 공동의 미래 자산으로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2011년에 국제과학협의회(ISC, International Science Council) 산하 양대 국제 남극학술기구인 해양연구과학위원회와 남극연구과학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 박 연구원은 극지 바다에서 탄소 순환과 해양 생지화학, 기후기체의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해양화학 전문가이다. 이산화탄소가 극지 해양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제거되는지를 추적하는 등 남극에서 장기간 현장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인정받아 SOOS SSC 위원으로 위촉됐다.
- 그는 SOOS SSC 위원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남극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극해 연구의 장기 목표 수립에 참여하고 우선순위와 투자 방향을 결정해, 과학자들의 효과적인 연구 진행을 도울 것이다.
- 국제해양탄소관측협력기구(IOCCP)와 국제 해양 산성화 관측 네트워크(GOA-ON)의 남극해 지역 허브의 공동의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 임기는 2024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 3년간이다.
- 박기홍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남극과 남극해 연구가 SOOS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남극 해양 연구의 국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계획을 전했다.

붙임. 박기홍 남극해 관측 시스템 과학위원회 위원 사진

붙임

박기홍 남극해 관측 시스템 과학위원회 위원 사진

